

대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작용

남도대학교 : 정재훈*, 김영선

Antioxidative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Water extracts from Korean Bamboo

Dep. of The Development of Medicinal Resources and Horticultural Industry,

Namdo Provincial College

Jae-Hun Jeong* and Young-Seon Kim

실험목적

대나무 추출물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대나무 줄기와 잎을 열수 추출하여 항산화 및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왕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S. et Z.), 맹종죽 (*Phyllostachys pubescens*)

솜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조릿대 (*Sasa borealis*)

대나무 추출은 3년생으로 채취한 대나무 줄기와 잎은 깨끗함 물로 수세한 후 10일간 자연 건조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함.

○ 실험방법

시료 조제 - 대나무 시료는 건조하여 작은 조각으로 만든 후 수직 환류 냉각기가 부착된 추출 flask에 넣고, 시료중량에 10배의 증류수를 추출 용매로 90°C에서 추출한 후 감압 여과하여 농축한 후 추출된 잔사를 진공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였으며, 냉장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함.

항균활성 측정

항균력 검정에 사용된 균주는 식중독 원인균인 *S. aureus*로서 표준균주인 ATCC 6538로 *S. aureus*의 최적생육배지인 NB(peptone 5g, beef extract 3g, pH 6.8)에 대나무 추출액을 각각 100, 300, 500 mg/L가 되도록 첨가한 후 *S. aureus* 균 배양액 100μl(균체수 약 5x10⁶개)를 분주하여 멸균 유리봉으로 도말한 다음 호기성 조건을 유지시키며, 37°C로 24-48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생성된 콜로니의 수를 조사하였다.

대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1) 추출 및 시료조제 : 동결건조 시료 1g을 MeOH로 추출 후 농축하여 동결건조 시킨 후 최종 14,000ppm이 되도록 하고 DPPH 소거활성 측정에 이용한다.

2) DPPH 소거활성 측정

각 물질의 항산화 효과는 Blois의 방법에 따라 일정 농도의 각 시료에 0.1mM DPPH용액을 첨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주저자 연락처 (Corresponding author) : 정재훈 E-mail : jhjeong@namdo.ac.kr Tel : 061-380-8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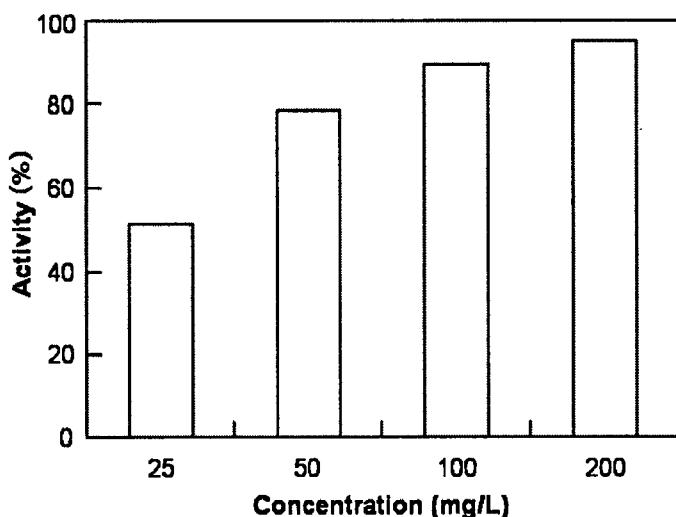
실험 결과

대나무 추출물의 항균 효과

대나무 추출물의 항균력을 검정하기 위해 공시균주인 *S. aureus* 균 배양액 100 μ l(균체 수 약 5×10^6 개)을 대나무 추출물이 각각 100, 300, 500 mg/L가 되도록 첨가한 NB배지에서 접종한 후 호기성 조건에서 37°C로 24-48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생존한 콜로니를 조사하였다. 추출물 함량이 높을수록 급격히 생존한 균수가 감소하였으며, 500 mg/L 추출물 첨가구에서는 공시균이 완전 사멸한 결과를 보여 대나무 추출물이 강한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대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를 동결건조하여 1g을 취해 MeOH 추출하여 농도를 맞춘 후 중 일부를 취해 DPPH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대나무 열수추출물의 RC_{50} 값은 20.5mg/L 였으며,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대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효과